

‘청룡의 해’ 용 그림으로 비상을 꿈꾸다



은암미술관에서 열리는 ‘미르, 나르샤 전의 전시실 모습.

2024년은 갑진년(甲辰年) 청룡의 해다. 예로부터 용은 상상 속 영물로 인식돼 왔으며 다양한 설화를 비롯해 속담, 격언 등에 비유됐다. 특히 용은 잠재적 가능성을 내재하는 의미로 표상돼 왔다.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은 신분 상승을 용이 날아오르는 것에 빗댄 비유로 많이 활용된다. 등용문을 거쳐 입신출세를 하게 되는 상황을 그와 같은 속담과 연관할 만큼 용을 신성시했다.

청룡의 해를 맞아 용의 의미를 다채롭게 고찰해 보는 2개 전시가 열려 눈길을 끈다. ‘미르, 나르샤’와 ‘새해맞이 용 그림 전’이 그것.

먼저 은암미술관(관장 채종기)의 ‘미르, 나르샤’는 사람들의 염원이 투영된 상상 속 동물인 용을 초점화한다. 용은 순 우리말로 ‘미르’라고 불린다. 또한 갑진(甲辰)은 푸른색을 상징하는 ‘갑’, 용을 상징하는 ‘진’이 결합해 청룡(靑龍)의 의미로 수렴된다.

28일부터 개막돼 내년 1월 15일까지 진행되는 전시는 상상과 결합한 바람이 투영된 용을 현실 속으로 불러들인다. 모두 5명의 초대작가와 1명의 연구자로 구성돼 있다. 김생수, 김창덕, 김평준, 김혜경, 임종두 작가는 자신만의 화풍으로 용을 선보이며 손희하 국어학자는 용의 의미를 세세하게 풀어낸다.

도자에 그려진 김창덕 작가의 ‘용이 나르샤’는 구름을 헤치며 하늘을 나는, 역동적인 용을 포착한 작품이다. 도자를 휘감은 몸체와 신령한 기운은 승전이 지나는 의미는 물론 도약과 전진을 함의하고 있어 약동의 기세를 느끼게 한다.

김창덕의 ‘청화운룡’에서는 강렬한 기세가 배어

‘미르, 나르샤’ 은암미술관
김생수·김창덕·김혜민 등 참여
박하용 작가 ‘새해맞이 용 그림 전’
29일부터 민 아트갤러리

나온다. 성큼성큼 날아가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용의 치켜 뜬 두 눈과 갈퀴 같은 날개로 발톱은 지상의 어느 동물과는 견줄 수 없는 강인함과 신성함을 준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탐색해온 임종두 작가는 용의 의미에 중점을 둔 작품을 선보인다.

김혜민 학예연구원은 “이번 전시는 용과 관련된 다양하면서도 독창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자리”라며 “저마다 비상하는 용처럼 내년에는 모두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한다”고 밝혔다.

손희하 국어학자는 용을 매개로 한 지명이 기록된 지도를 선보인다. 농경사회에서 구름과 비를 주관했다고 믿었던 용을 모티브로 한 지명은 인문학적 상상력을 갖게 한다.

박하용 작가의 ‘용 그림 전’은 민 아트 갤러리(광주 상무 민주로)에서 볼 수 있다. 29일부터 2024년 1월 6일까지.

작가는 인간이 태어나면서 누구나 갖게 되는 때, 그 가운데 용의 피를 주목했다. 12간지 중 하나인 용이 인간의 삶에 깊이 투영된 흔적과 자연과의 결합 속에서 드러나는 다채로운 양상 등을



민 아트 갤러리서 열리는 박하용 그림전- ‘청룡’

들여다본다. 푸른 색 무늬와 붉은 비늘이 인상적인 ‘청룡’이 오색의 구름을 헤치고 하늘로 비상하는 모습은 강렬한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한다. 성난 듯 크게 벌린 입과 부릅뜬 두 눈은 기세등등해 압도당할 정도다.

박하용 작가는 “국내외 적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새해는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정이 깃들기를 기원한다”며 “용이 발하는 상서로운 기운에 힘입어 만사형통, 성취, 행운 등이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



커튼콜에서 모든 배우들이 무대에 올라 ‘그림에도 불구하고’를 다함께 부르는 장면. <크리에이티브트 제광>

이금주 할머니 정신 계승...강제징용 피해자 위로 ‘광주천인소송 주도’ 故 이금주 다룬 오페라 공연 성료

“아무도 가지 않은 숲속이지만 누군가에게 이해 받지 못해도, 아무도 나를 기대하지 않아도. 그림에도 불구하고 그림에도 불구하고...”

어린 이금주 역을 맡은 소프라노 조안나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태평양전쟁희생자 광주유족회장 고(故)이금주(1920~2021)를 다시 만나는 것 같다. 2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쳐진 창작 오페라 ‘그림에도 불구하고’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으로 끌려가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내며 강제 동원 피해자들을 도왔던 이금주 할머니의 삶을 다룬 작품이다. 공연은 컬처크리에이티브그레이스가 주최했으며 (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협력했다. 극작 및 연출에 최민.

이금주는 생전 강제동원 피해자 1273명의 사연을 손수 기록해 일제강제동원 진상규명의 토대가 된 ‘광주 천인 소송’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80여 차례나 일본을 오가면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수장됐던 ‘우키시마마루사건’을 세상에 알렸던 주역이다. 관부재판(시모노세키 재판) 등을 통해 일본이 처음으로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데 기여를 했으며 강제동원특별법 제정에도 힘을 써 피해조사 및 구제에 앞장 서기도 했다. 공연은 이 같은 비극적 삶을 초절화한 것.

막이 오르자 조선의 민요가 흘러 나왔고 스크린은 한국사의 흐름을 보여준다. 잠깐의 암전 뒤 책상에서 눈을 뜬 이금주는 자신의 결혼식 등 아름다운 과거를 회상한다.

이윽고 “신식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조선의 근



이금주

분을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배우의 외침이 들리고, 갑작스레 ‘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꿈 같은 결혼식은 태평양 전쟁의 참상과 오버랩된다. 작품은 순수 민간 임의 단체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진행했던 천인 소송에 주목했다. 당시 일흔이 넘는 이금주 할머니가 패소를 각오하면서도 법정 투쟁을 통해 일본 정부를 국제사회에 고발했던 일화를 오페라에 담았다. 수천 장 문서 앞에서 골머리를 앓던 이금주의 모습도 고스란히 극화했다.

이금주 역은 소프라노 박준영이 맡았으며 어린 이금주·기자A 역은 소프라노 조안나가 열연했다. 동료A 역에 테너 장호영이 출연했으며 소프라노 문지안, 바리톤 이준희, 오창선 배우 등이 무대에 올랐다. 특히 공연의 마지막 장면이 이금주 할머니의 유서와 육성으로 채워져 막막함을 주었다.

연출을 맡은 최민은 “이금주 할머니는 일본 법정에서 ‘역사는 쓰레기가 아니다’고 외쳤을 뿐 아니라 과거 일본이 펼친 과오를 바로잡고 사과받기 위해 외로운 투쟁을 이어왔다”며 “수많은 피해자들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비록 고인이 되었지만 법정 투쟁을 벌였던 이금주 할머니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작품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실천인문학’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 강좌

서명원 교수 ‘몸, 언어, 철학’ 첫 강의...내년 1월8일 인문학카페 노블

실천인문학을 지향하는 광주시민인문학 커뮤니티가 새해에도 강좌를 진행한다. 110기 정기 강좌가 오는 1월 8일 전남대 정문 앞 인문학카페 노블에서 시작된다.

월요일 ‘몸, 언어, 철학’ 시간은 서명원 교수가 8일 ‘신체화된 마음에 관하여’를 주제로 문을 연다. 강의는 22일에도 동일한 주제로 진행된다.

목요일(11일, 25일) ‘맑스 연구회’ 시간은 위상복 교수가 ‘철학의 반공’을 강독하며, 금요일(12일, 26일)에는 ‘하루키월드’를 주제로 신우진 이사장이 하루키 신작 ‘도시와 그 불확실한 벽’을 시민들과 이야기한다.

주말인 토요일 27일(오후 7시)에는 광시인 이사회 주최로 ‘책맥데이’가 진행되며, 일요일 ‘인문학’ 시간에는 진정환 이사 등이 새해에 떠나는 인문학여행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명혜영 인문교실도 진행된다. ‘एको페미니즘’을 주제로 한



‘ESC 인문학’을 비롯해 일본소설로 인문학을 접해보는 ‘소설읽기반’, 키워드로 영화를 해석하는 ‘영화인문학’,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강독하는 ‘철학스터디’도 예정돼 있다.

참가비는 4만원이며 강좌별 5인 이상 등록 시 설강. 자세한 내용은 네이버 카페 광주시민인문학 참조.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광주문화재단 2026년까지

‘가족친화기관’ 자격 연장

광주문화재단(재단)이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가족친화인증 재인증 심사’를 통과해 2026년까지 자격을 연장했다. 2015년 최초로 가족친화 인증을 받은 이래 8년째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 센터를 지정하거나 유연근무제, 양육지원 등 직장문화를 조성하는 제도다.

재단은 유연근무제, 가족사랑의 날 도입, 가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임신기 및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도 등 다양한 가족친화제도를 도입해 왔다. 최근 가족조정행사를 진행하는 한편 각 지역에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키트를 제공,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인증받았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청년문화예술 기획자 양성학교 최우수상에 최혜지 씨

청년문화허브 실천형 문화기획 프로그램 ‘호랭이 스킵’을 통해 지난 10월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공연 ‘Remember Artist’를 기획한 최혜지(여·26·사진)씨가 ‘2023 광주시 청년문화 예술 기획자 양성학교 최우수상’을 받았다.

최 씨는 전남대 음악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한 뒤 동 대학원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그는 음대 졸업 후 공연 기획이 부족한 신진 예술가들에게 무대를 마련해준다는 취지에서 프로그램을 기획, 총 12명의 예술가들을 무대에 올렸다.



수상 소감에서 최혜지 씨는 “‘생신인’들이 예술적 경험이 부족한 것을 보고 안타까워 프로그램을 기획했다”며 “광주 지역 신진 예술가들에게 도약의 발판이 되는 프로그램에 기획자들과 문화예술 기관이 더 많은 관심을 보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관 지붕공사



건물 리모델링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옥상스틸방수



주택 (외, 내부)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ODERN **모던건설**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